**가면산장 살인사건**

**[수요일팀]독수리 – 조0연**

1. **서자소개**

-히가시노게이고

 1958년 2월 4일 오사카에서 태어나 오사카 부립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곧바로 일본 전자회사인 '덴소사'에 입사해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틈틈이 소설을 쓴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85년 『방과후』로 제31회 에도가와 란포 상을 수상했고 이를 계기로 전업작가가 되었다. 그의 소설은 치밀한 구성과 속도감 있는 스토리 전개,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독자를 방심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빙의나 의료 사고 등 녹록치 않은 소재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며 당대 첨예한 사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추리소설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소설을 쓰고 있다. 늘 새로운 소재와 치밀한 구성, 생생한 문장으로 매번 높은 평가를 받는 저력 있는 작가인 그는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답게 작품 중 19편이 영화와 드라마로 다시 독자들과 관객들을 만났다.

1. **작품의 시대적 배경**

2014.09.26 출판으로 현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1. **내용요약**

 아버지 소유의 별장 근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꿈이었던 도모미는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식장으로 예정된 교회에 다녀오다가 운전 부주의로 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에서 추락해 사망한다. 얼마 후, 그녀의 약혼자였던 다카유키는 도모미의 아버지로부터 별장에 와서 묵으라는 초대를 받는다. 도모미가 죽은 이후에도 그녀의 가족과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던 다카유키는 기꺼이 초대에 응해 도모미의 부모와 오빠를 비롯한 7명의 친인척과 함께 별장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한다. 다카유키가 별장에 도착한 날 밤, 경찰에 쫓기던 2인조 은행 강도가 별장에 침입해 그곳에 모여 있던 8명을 감금하고 인질극을 벌인다. 인질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인질과 강도 사이에 피 말리는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인질 중 한 사람이 등에 칼이 꽂힌 시체로 발견된다. 정황으로 미루어 범인은 강도가 아닌 인질 중 한 사람. 나머지 7명의 인질은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패닉에 빠지는데, 사실은 도모미의 인연 다카유키를 도모미의 살해용의자로 생각한 도모미의 아빠가 다카유키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트릭을 설치한 것이었다.

1. **감상평**

 독저의 선입견이나 일반 상식의 허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정보를 오인하도록 만드는 서술 트릭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범인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여 범인을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읽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들을 생각하며 예상 못한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다양한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주의깊게 읽었지만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이책을 통해 다른 추리소설을 읽을 때 또하나의 관점이 생길 것 같다.

 자신의 사랑에도 확신이 서지 않고 자신을 좋아해주는 좀더 매력적이어 보이는 이성이 있다고 결혼을 약속한 인연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다카유키 그의 행복을 위한 일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흔히들 얘기하는 익숙함에 속아 자신의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린 경우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다른이성을 바라보는 연인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도모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슬프다가도 연인이, 사랑이 세상의 전부는 아닌데 그로인해 죽음을 택한 도모미가 바보같아 보이기도 한다.

 처음에 산장으로 들어갈 땐 산장에 가면이 걸려있었지만 범인이 밝혀진 후 가면이 사라진다. 가면을 쓰고 있는 범인이 밝혀진 후 가면이 사라진 것인데 소설의 내용을 보면 가면을 쓰고 있던 범인조차 자신이 범인이줄 모른다. 내가 느끼기에는 제목부터 ‘가면산장 살인사건’인것처럼 가면이 더 효과적으로 내용안에 녹아들었을면 더욱 재미있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생각으로는 혹시 내가 가면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인 건 아닌지 다른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